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

開 會 辭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19대 회장직을 떠나면서 금년도 제2회 임시총회에 즈음하여 개회사를 겸한 신상발언을 올리게 되어 심정이 매우 착잡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총회 결과에 대한 승인요청이 주무장관으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본인은 하루 빨리 새집행부가 선출되어 협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본인의 자진 사퇴서를 감사에게 제출·보관시켰고, 오늘 총회에서 공식 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간 협회는 본의 아니게 두달간이나 공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의 와중에 있는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조류에 발맞춰 적응과 발전을 가속화하며 성숙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같은 전문단체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많은 기회마저도 놓쳐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대 사회적으로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날의 시시비비와 과오는 과감히 잊어버리고 오늘 총회를 한점의 하자도 없이 훌륭히 치루므로써 새롭게 거듭나, 협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진하는 현 임원진은 이같은 일념뿐임을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막연한 오해는 이 시점을 기해서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회의를 하나의 하자도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자는 것 뿐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본인은 물러가는 입장에서 대의원 여러분에게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집행부가 불신임당한 표면적인 사유는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건축사법 개정안중 문제의 몇가지 조항 즉, 현행 종합사무소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법인사무소제도, 공제조합 조항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의 내용은 2년전부터 협회의 공론으로 연구 검토되었고, 정부와도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접근된 사항으로서 본인이 작년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을 결코 출마하여 선출된 회장이 공약을 실천기 위한 출발점 상황에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안은 협회의 안과는 달리 우리 건축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조항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후 정부 당국자와 활발한 협의결과 당시만 해도 정부 시안중 우리의 의견과 다른 조항은 고쳐주겠다고 약속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급히 출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대의원 여러분에게 널리 홍보는 못하였지만, 이사회 의결 및 시도회장회의에서 보고 협의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되는 새집행부는 건축사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보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협회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정관에도 그 취지가 깔려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시 이사 대부분이 총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또는 협회의 공전을 막기 위해서 자진사퇴의 형식이 되었습니다만, 건축사법에 관한 한 책임질 사람은 본인이하, 법제담당 임직원으로 국한되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잉크도 안마른 이사가 무슨 많은 일을 했겠으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화합과 단결의 차원에서 이점 새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평생동지입니다. 우리 회원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상은 동일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며 더불어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합시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하게 오늘의 총회를 매끄럽게 치루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경우 본인을 위시한 임원진은 사퇴서를 첨부하여 새 집행부가 조속히 승인을 득하도록 법적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 6. 3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永 熙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 전경

본 협회는 지난 6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93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9일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 결과 이영희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새 회장으로 추대됐던 오웅석 회원과 이사진의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정관규정에 위배된 결의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이영희 회장의 사퇴서 수리와 신임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에 즈음해 이영희 회장은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왔다」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수리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승인하고, 신임 회장 선출에 들어가 오웅석 회원을 단일후보로 추대, 표결에 붙여 재적대의원 240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신임이사진 구성은 지난 속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인선한 임원진을 그대로 재선출하였으며, 참여이사 선임은 신임회장에 일임키로 했다.

이어,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집행부에 일임, 일부 의견은 서신으로 접수, 반영키로 하고 폐회했다.

회장 이·취임식 거행

—20대 회장에 吳雄錫 회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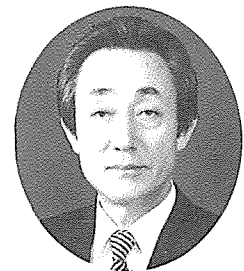


이·취임식

본 협회 20대 회장에 吳雄錫 회원 ((주)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취임했다.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회장 이·취임식에서 李永熙 전임회장은 「그동안 우리 회원간에 팽배해 있던 오해와 불신을 오늘을 기점으로 종식시키고, 시대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실추된 협회의 위상을 회복하자」며, 「새 집행부의 분발을 확신하며,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 신뢰의 협력하는 기풍을 조성하자」는 이임인사가 있었다.

이어 있는 취임사에서 신임 吳회장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재정돈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상을 정립해 나가자」며, 「건축사법 개정문제는 회원의 자유로운 저작활동과 권익이 보장되면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운영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 위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건축사」지 기능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연금운영의 효율적 개선 등에 관해 역



吳雄錫 會長
(1930. 12월생)

- 1954. 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1965. 7. 건축사 면허 취득
- 1969. 9.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 1965. 7. 신조 건축 연구소 개설
- 1982. 3. -86. 10.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1982. 11. -86. 10.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장, 전국회장 역임
- 1984. 7. -85. 6. 서울특별시 시정자문위원(도시개발)
- 1985. 3. -87.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도시설계조정 심의위원
- 1986. 3. -87. 2. 건설부 건축위원회 위원
- 1989. 12. -91. 12. 건설부 중앙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 1993. 현재 (주)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자영중

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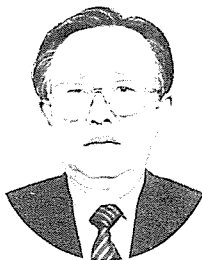
이날 식장에는 역대 회장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신임 임원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과 협회기 전달이 있는 후 장기인 자문위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신 임 임 원 (가나다 順)



金仲宰 理事

- 1942년 6월생
- 본협 이사 및 부산건축사회회장
역임
-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金仁坤 理事

- 1935년 3월생
- 서울건축사회 강남분회장 역임
- (주)세마건축 대표이사 역임
- (주)동일건축사사무소 대표



金在佑 理事

- 1937년 5월생
- 본협 이사 및 대구건축사회장
역임
- 한남건축사사무소 대표



金澤盛 理事

- 1938년 2월생
- 서울건축사회 강남분회 감사,
복지회 및 신희 이사
- 흥인건축연구소 대표



宋良漸 理事

- 1938년 12월생
- 본협 이사 및 광주건축사회장
역임
- 한미건축설계사무소 대표



李一潤 理事

- 1940년 11월생
- 경기도건축사회장 역임
- 한림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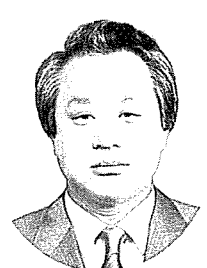
李鍾寬 理事

- 1943년 3월생
- 본협 에너지분과 위원장 역임
- 건축사사무소 한국 대표



李鍾萬 理事

- 1933년 11월생
- 서울건축사회 서초분회장 역임
- 녹야·현악·호성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李春相 理事

- 1936년 5월생
- 본협 감사 및 이사, 서울
건축사 회장 역임
- 신양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건축사회 경로소연 개최



경로소연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5월 14일(금) 경기 파주 소재 문산(반구정)에서 제2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추대회원과 역대 회장들을 모시고 경로소연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로사상이 날로 퇴색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원로건축사에 대한 경의표시를 하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매년 베풀어지고 있다.

경북건축사회 건축사보 교육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에서는 지난 5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건축사보 1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태웅 회장의 건축가의 요건, 울산대 성인수

교수의 20세기 현대건축의 여러 경향, 김이두 교수의 컴퓨터를 이용한 건물의 구조해석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건축사보 일동은 건축문화 창달과 신한국 창조에 기여코자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528 건축사보교육

「노인복지국제학술회의」개최

경남 건축사회(회장 배동권)는 지난 5월 4일(화) 경남 마산시 소재 경남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남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종합 리조트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노인복지 국제학술회의에 협찬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역언론사 및 KBS, MBC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됐

으며, 경남 지역 해안가의 노년층 종합리조트타운 계획방향(경상대-박태환)과 실버커뮤니티의 설계기법(버링 브라운 건축설계(주)-다렐브라운) 그리고 실버커뮤니티의 경영방법(런너웨이베이 실버타운(주)-알란지)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친선 뉴시대회

영·호남 회원 친선 뉴시대회 개최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 주최로 지난 5월 1일(토) 경북 안동군 임하댐에서 7개 건축사회(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영·호남 건축사 회원 친선 뉴시대회를 개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93경남건축전 작품공모

경남건축사회(회장 배동권)에서는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건축계의 장래를 이끌어갈 후진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제3회 경남학생작품전을 겸한 '93 경남건축전을 개최한다.

○출품자격

- 건축사(회원)부문: 경남건축사회 회원
- 학생부문: 경남도내(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출품내용

- 건축사(회원)부문: 준공검사 필한 건축물
- 학생부문: 순수창작 작품으로 용도, 규모 및 대지여건은 무제한(졸업작품과 겸하여도 무방)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건축사부문
 - 90cm×90cm의 규격, 작품당 패널 2매 이내
 - 작품의 사진은 공동으로 촬영
- 학생부문
 - 120cm×120cm의 규격, 패널 매수 제한 없음
 - 도면작성
 - 공동작은 3인 이내
 - 타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을 제외

-공동사항

- 패널제작시 반사재료 사용을 금할 것
- 전사용 절고리 부착
- 패널재료는 운반, 전시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재료
- 모형은 출품을 금하고 사진으로 대체
- 패널 규격 엄수

○작품접수: 1993년 10월 15일(금)~16일(토)

○시상내용

- 건축사부문: 작품집 발간 홍보
- 학생부문
 - 대상(1점):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최우수상(1점): 상금 70만원과 상패
 - 우수상(2점): 상금 각 50만원과 상패
 - 장려상(3점): 상금 각 30만원과 상패
 - 입선(다수): 상금 각 10만원과 상패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패 수여, 입상자에게는 졸업후 회원업체 우선채용

※작품접수 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사무국
전화: 46-4530-1, FAX: 45-4530

분당 주택 전시관 개관

한국주택협회(회장 류근창)에서는 분당 야탑역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건립, 지난 5월 31일(월) 개관했다.

분당신도시 야탑역 인근에 들어선 이 주택 전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만9천7백21평 규모로 96년 말까지 4단계 사업계획으로 주택공원이 조성되는데 참여하는 건본주택 통합전시관으로 수도권 분양아파트 상설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 참여한 업체 중 (주)청구주택의 청구문화관은 세계 60여개국의 주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민 세계민속관과 청구가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전시하는 건본주택전시관 그리고 청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직경 14미터의 돔형태의 영상관으로 구분, 단연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10일(월) 연구원내 2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배순석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제도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발

표에서 재건축과 공공개발과의 관계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집중 진단했으며, 이어 임상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 본 재건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최근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함께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건축학회, 공업화주택 기술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5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현식 중앙대 교수의 'PC 공법활용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기초연설에 이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공업화주택 기술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많은 관계자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제1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요강 발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

한민국건축대전의 올해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전시내용 및 출품기간

구분	전시기간	원서교부	작품접수일	접수시간
초대전	93.11.5-11.19		93.11.2	10:00-17:00
일반공모전	93.11.5-11.19	93.6.21-7.30	93.11.1	10:00-17:00 (시간연수)

- 전시장소 및 작품접수처 : 예술의 전당 미술관(서울 서초 700)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명칭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작품내용 :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

- 내디자인, 조정, 가구 등)
- 작품규격
패널 : 100cm × 200cm 이내
모형 : 100cm × 100cm × 100cm 이내
- 발표 : 1993년 11월 5일
- 원서교부 및 문의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전화 744-8050)

건축가협회 6월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지난 6월 4일(금)에 총회관 회의실에서 「창작과 제도」라는 주제로 6월 금요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건축계의 관심사인 감리제도와 건축사제도와 관련 외국의 예를 들어 발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건축행정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김수문(가우건축대표)/ 미국의 감리제도(캘리포니아주)
- 정기용(기용건축대표)/ 불란서 건축사제도
- 손병석(건설부 계장)/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제도
- 김인철(인제건축대표)
- 김홍수(단우모람대표)
- 최관영(일건건축대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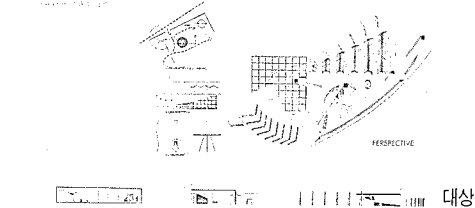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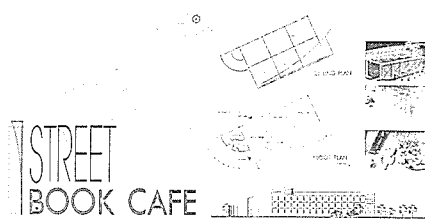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장 윤도근)에서는 오는 6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연세대 알렌관에서 실내디자인 시장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내디자인학회의 5개분과 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최근 설비발달 현황(실내설비위원회)

- 컴퓨터를 이용한 실내 조명 설계(실내조명위원회)
-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목재대용 인공소재 및 표면재료(실내가구위원회)
- 최근 실내디자인 재료시장의 성향(실내재료위원회)
- 현대 건축기술과 실내디자인의 역할(실내시공위원회)
- ※문의처 : 한국실내디자인학회(전화 564-2598)

제6회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수상작 발표



가인디자인그룹과 월간 인테리어에서 개최한 제6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개최된 이번 대전에서는 총 73작품이 응모하여 문효정·조소영·이정민(이화

여대 산미대학원)이 출품한 'STREET BOOK CAFE'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수상 1점, 특선 8점, 입선 14점이 각각 선정, 수상하였다.

※문의처 : 월간 인테리어 편집부(전화 744-7643)